빛과 소리의 섬 진도

우리 땅 소리 기행

글 **조윤주** · 사진 **김경수, 김성재**

진도(珍島). 보배로운 섬. 비옥하다 하여 옥주(沃州)라고도 불렸던 곳.
제주와 거제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 섬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운림산방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세방낙조(細方落照)를 감상한 걸로
이 섬을 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면 서운할 듯합니다.

진도는 눈으로 보아 충분히 아름다운 섬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소리의 섬이니까요.

진도에 가시거든 부디부디 소리를 만나 보세요.
이전에 당신이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알던 것이 많았건 적었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선 저절로, '이것이 한국의 소리로구나' 하는 탄성이 입에서 새어 나올 테니까요.

당신의 유전자가 기억하는 소리, 당신의 몸을 닮은 소리가 살고 있는 섬,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01 진도 세방낙조에선 가끔씩 야외 공연이 열린다. 운이 좋다면 여행길에서 우연한 귀 호사를 누릴 수 있다. **02** 국립남도국악원 상설 공연 중에서 운림예술단의 〈남한산성 도척놀이〉가 한창이다. **03** 다도해에 해 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진도에 일부러 해넘이를 보러 가는 여행객들도 있을 정도다.

서양 음악과는 달리 한국 전통 음악에선 노래와 연주, 춤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병창(竝唱)'이라고 하여 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하며 노래를 하기도 하고, 장구나 북 같은 악기로는 연주를 하며 춤도 춥니다. 노래하며 연희도 겸하는 강강술래 같은 장르는 음악도 되고 무용도 되겠군요. 판소리만 해도 노래에 사설에 연기, 창작까지가 한 덩어리지요.

악(樂)과 가(歌)와 무(舞)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즉흥성이 중요한 한국 전통 음악. 이 음악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라고 쓰지만 영어의 사운드(sound)와는 다르지요. 악기 소리와 사람 목소리와 움직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너무 두루뭉술하고 뭉뚱그린 것 같다 싶어 다른 말을 찾자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참으로 한국다운 표현입니다.

진도가 왜 소리의 고장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진도에선 길 가던 아이도 '육자배기' 한 자락을 모양 있게 뽑는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예인(藝人)을 많이 배출한 섬으로 유명한 이 섬에는 유독 전통 음악의 유산이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민요인 '진도 아리랑'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강강술래'뿐 아니라, '남도 들노래', 진도 씻김굿, 초상집에서 출상 전날 벌어지는 '다시래기', '진도 북놀이' 같은 이 섬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섬의 이쪽저쪽에 민속놀이며 민요가 다양하지요. 게다가 진도 하면 육자배기가 있습니다. 육자배기는 전라도 지방 전역에서 불리는 잡가입니다만, 진도 사람들의 육자배기는 유독 구성져서 듣는 이의 귀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수련을 거친 이름난 소리꾼들만이 아니라 김매고 고기 잡는 평범한 이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한(情恨). 진도의 육자배기를 말할 때 꼭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부러지고 이어지는 노랫말과 곡조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진도 소리는 남도 소리 중에서도 소위 '정통'에서 벗어나 있다고들 합니다. 동편제에도 서편제에도 속하지 않는, 그야말로 잡가이고 속악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곧장 뚫고 들어옵니다. "추야장 – 밤도 길더라 – 남도 이리 밤이 긴가 – 밤이야 길까만 – 임이 없는 탓이로구나 – 언제나 알뜰한 – 임을 만나서 – 긴 밤 짜릅게 – 샐 거나 헤 – " 주름살 굵게 진 얼굴의 아낙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 속에서 그이의 삶과 내 어머니의 삶, 나의 삶이 겹칩니다. 슬며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소리의 힘인지, 진도의 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1

01 국립남도국악원 상설 공연 중에서. 리허설 장면. **02** 운림예술단의 진도 북놀이 공연. 농악에서 따로 북을 독립시켜 춤으로 승화시킨 북놀이는 남성적인 춤사위와 꿋꿋한 기품이 조화를 이룬다. **03** 국립남도국악단원들의 연습 시간. **04** 운림예술단 공연 중 반주자들의 모습. 한국 전통 음악에서는 반주자의 역할이 공연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중요하다. 반주자들은 소리로 공연을 이끌어 가고, 공연하는 이들의 흥을 북돋기도 한다.

02

03

04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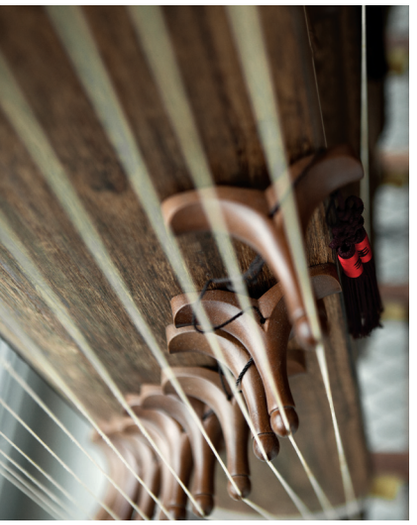
진도 여행길에선 부러 상설 공연을 꼬옥 챙길 만합니다. 금요일에는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토요일에는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립국악원은 서울 이외의 세 곳에 더 있습니다. 제2의 도시인 부산, 판소리의 본고장이라 할 남원, 그리고 진도입니다. 한국의 소리에서 진도가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만큼인지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입지가 빼어납니다. 아름다운 다도해가 한눈에 보이는 산 중턱에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한 공간이 턱 하니 앉아 있지요. 매주 금요일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수준이 높은 국악 공연이 열린답니다. 공연이 끝나면 기능 보유자들한테서 제대로 된 강강술래를 배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공연 관람에 숙박, 소리 교육에 진도 여행까지 즐길 수 있으니 마다하기 어려운 초대가 아닐까 합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토요일의 상설 공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진도군립예술단이 기획하는 공연인데 거의 모든 공연진이 실제로 진도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공연의 모양새며 외양이 소박하긴 하지만 그 수준마저 소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리란 것이 원래는 이렇게 삶과 한 몸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국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얄팍한 지식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지요.

01 진도의 씻김굿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전(紙錢)이다.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달랠 때 돈 대신 쓰였던 이 지전을 이용한 지전춤은 살풀이춤을 연상케 하는 정중동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02, 04** 〈남한산성 도척놀이〉는 병자호란 이후 전파된 민속놀이라고 전해진다. 원래는 백성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전쟁 놀이 형태의 군무(郡舞)였다는데 진도에서는 강강술래와 함께 혼용되다가 차츰 사라졌다. 현재는 남한산성 도척놀이 보존회에 의해서만 전승된다. **03** 국립남도국악원의 전경.

03



진도 풍광 참 좋지요. 섬이라는 이유로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산세도 꽤나 수려하고 깊습니다.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에선 정말 물살이 빠른 속도로 빙빙 도는 게 보입니다. 방파제며 산성, 올망졸망한 섬들로 채워진 수평선도 놓치면 안 될 테구요. 운림산방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화나 동양화의 전통은 잘 모른다 해도 첨찰산에서 이어지는 아늑한 산의 품에 자리 잡은 산방에 앉아, 눈으론 보이지 않는 남해 바다의 향기를 느끼는 운치가 있지요. 연못가에 철 따라 피어나는 동백이며 수련, 배롱나무 꽃은 덤입니다.

그렇지만 진도 여행을 꽉 채우고 싶으신 당신이라면, 소포리나 운림예술촌을 들르셔도 좋습니다. 소포리는 도시의 그 노래방이 아닌, 우리 소리를 하는 노래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밤이면 동네 아낙들이 모여 소리를 하는 공간이지요. 이 마을에는 전통민속체험관이 있습니다. 상설 공연이 있기도 하고, 따로 신청해서 소리 기행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낮에 구기자 같은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저녁에 북춤도 추고 굿놀이며 농악도 하고 다시래기와 육자배기를 부릅니다. 그야말로 온 마을 사람들이 전천후 예술인입니다.

소포리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역사도 짧지만, 운림예술촌에도 공연을 하는 운림예술단이 있습니다. 역시나 동네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연주도 펼칩니다. 남원산성 도척놀이는 이곳에서만 계승되는 놀이인데 강강술래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독특한 공연입니다. 소포리며 운림예술촌이며, '마을 사람들'의 공연이라 낮잡아 볼 사람이 행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할 밖에요. "한번 직접 들어 보세요."

01 공연의 마무리에서 운림예술단 단원들이 다 함께 진도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02**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진행하는 강강술래 배우기 시간. 강강술래 기능 보유자가 직접 재미있고 친절하게 놀이의 이론과 실전을 설명해 준다. 교과서에서 배워 왠지 고루하게 느껴졌던 강강술래를 생생하고 즐겁게 느끼는 시간. **03** 운림산방 전경. **04** 운림산방 전시실 내부.

진도 여행 정보

운림산방

운림산방은 조선 시대 남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 선생(1808~1893)이 말년에 거처하며 여생을 보냈던 화실이다. 지금은 화실 대신 소치 선생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치기념관, 진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진도역사관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작은 연못과 아름다운 정원이 어우러진 이곳은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배경으로 더욱 유명하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5 | 061-540-6286

국립남도국악원 금요 상설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수려한 산세의 여귀산을 등지고 드넓은 귀성 앞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무료로 진행되는 금요 상설 공연을 통해 전통 국악을 소개한다. 또 국립국악원에서는 공연 외에 주말 문화 체험이라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달빛 아래에서 강강술래를 배우고 진도의 대표적인 노래인 진도 아리랑 한 가락을 배우는 등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도 우리 음악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373 | www.namdo.go.kr | 061-540-4011

진도 토요 민속 여행 상설 공연

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는 토요 민속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소리 공연이자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노래 한 가락 못하면 진도 사람 아니라고 할 만큼 옛부터 삶의 애환을 담아내는 소리로 유명한 곳이 진도인 만큼, 이 공연은 진도에 가면 꼭 들러 보아야 할 곳이다. 강강술래, 남도 들노래, 진도 씻김굿, 다시래기 등으로 구성된 공연은 때로는 구슬프게, 때로는 흥겹게 남도의 진짜 소리를 들려준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 | tour.jindo.go.kr | 061-544-8978

소포 전통 남도 소리 체험

밭에서 김매는 아낙부터 툇마루에서 나물을 다듬는 할머니까지, 소리를 청하면 즉석에서 구성진 가락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다. 이곳은 진도 북놀이, 강강술래, 남도 들노래 등 무형 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전통 국악 마을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우리 소리가 주는 감동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 www.sopoli.com | 061-543-0505

운림예술촌(민속 체험 마을)

예술의 본향인 진도의 다양한 예술 자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 주민이 노력하고 있는 운림예술촌은 어느 집에도 대문이 없어 언제나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특히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운림예술단원들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진도의 민속 예술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 www.jindoullim.com | 061-543-5889